

#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4학기 김 지 연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전 혜 정

## 目 次

I. 서 론	IV.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
II. 해체주의	1. 차 연
1. 해체주의의 형성배경 및 개념	2. 의미의 불확정성
2. 해체주의의 디자인 특성	3. 상호텍스트성
III. 건축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	4. Dis · De의 탈현상
1. 차 연	V. 결론 및 제언
2. 의미의 불확정성	참고문헌
3. 상호텍스트성	ABSTRACT
4. Dis · De의 탈현상	

### I. 서 론

복식(Clothing)은 육체의 의복(Habiliments)인 동시에 정신(Vesture)의 의복이며,<sup>1)</sup> 한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예술적 양식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총집합체로 표현되고 있다.<sup>2)</sup> 역사적으로 볼 때 복식은 그 시대의 생활양식, 특히 건축물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진행되어왔으며, 여러 학자들이 복식과 건축을 연관시킨 논문을 발표하였다. M.J.Horn과 L.Gurel<sup>3)</sup>은 복식은 건축, 문학, 음악, 회화, 조각 등과 같이 문화적 환경에 반응하는 예술형태로 파악한 후 여러 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복식과 건축의 공통점을 연구하였고, 박명희, 장애란도 복식과 건축에 나타난 양식의 유사성을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트라이앵글라 에이프런과 피라미드, 그리스의 이오닉 키톤과 이오니아식 세로 홈이 있는 신전기둥, 중세 고딕 시대의 길고 뾰족한 모자 에넵(hennin), 신발 뿔렌느(poulaine)와 뾰족한 침탑, 르네상스 시대의 원추형 실루엣과 원추형의 등근 지붕 등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복식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 이것은 복식과 건축이 한 시대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표현한 조형예술임을 알게 해주며, 동일한 내

1) James Laver, 「Fashion Make Social History」 In The House of Worth (New York : The Brooklyn Museum, 1962) p.6.

2)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 1994, p.15.

3) Marilyn J.Horn & Loise M. Gurel, 「The Social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1975), pp.333~340.

적의미를 외적형식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후반 철학에서 출발하여 각 장르에 걸쳐 나타난 해체주의를 역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진행되어온 복식과 건축에서 비교·연구함으로써, 복식과 예술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고, 한 시대의 사상이 어떻게 복식 양식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였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의 개념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규명한다. 둘째, 해체주의의 특성을 바탕으로 건축과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을 각각 분석한다. 셋째, 건축의 해체주의적 특성과 복식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 시대 예술양식과 사상의 유사성을 고찰하여 정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Wölfflin이 예술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양식의 이중근원(double root)’이라 한 것처럼<sup>4)</sup> 본 연구는 건축과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범위로 해체주의가 대두된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로 두고, 해체주의의 형성배경과 개념을 각종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건축과 복식에서 이러한 개념이 어떠한 디자인 특성으로서 나타났는지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해서 고찰한 후 각 내용을 특성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실증적 작품분석은 해체주의 양식이 활발

히 진행된 1980년대와 90년대를<sup>5)·6)</sup> 주로 하였다. 건축에서 보여지는 해체주의 양식은 체계적인 설명이 들어있는 작가의 작품집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복식에서 보여지는 해체주의 양식은 작가의 작품집과 Collection誌, Vogue誌, 국내외 정기 간행물, 복식 관련서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끝으로 건축과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그 유사성을 고찰하였다.

## II. 해체주의

본 장에서는 해체주의의 형성배경을 살펴본 후, 해체주의의 개념과 그 양식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1. 해체주의의 형성배경 및 개념

1960년대에 널리 확산된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자아나 주제, 개인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개체에 대한 특권을 구조에 부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을 나타내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해체주의는 자크 데리다(J.Derrida)를 중심으로 구조주의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데리다(J.Derrida)의 철학적 기본입장은 ‘현존의 형이상학’이라 불리는 철학적 사유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형이상학적 유산들은 철학과 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sup>7)</sup>에 빠지게 했고, 언어학은 ‘음성중심적인 문자의 형이상학’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sup>8)</sup> 데리

4) H.Wölfflin, M.D. Hottinger(역), 『Principle of Art History』,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1929), pp.1~17.

5) Richard Martin and Harold Koda, 『Infra Apparel』,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94.

6) 이지윤, “조형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94, p.2.

7) 로고스 중심주의 : 음성중심주의라고도 하며, 음성을 문자보다 우위에 둔 사고방식으로 플라톤서부터 내려온 주요개념이다. Christopher Norris & Andrew Benjamin, 오덕조(역), 『What is Deconstruction?』, 청람출판사, 1996, p.88.

8) J.Derrida, De la grammatologie, 1967, p.11,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12.에서 재인용

다(J.Derrida)의 해체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texte)들에 대한 해체이며,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 '소외된 타자(他者)', '차이', '역사성'을 인정하였고 그동안의 고정된 서구 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sup>9)·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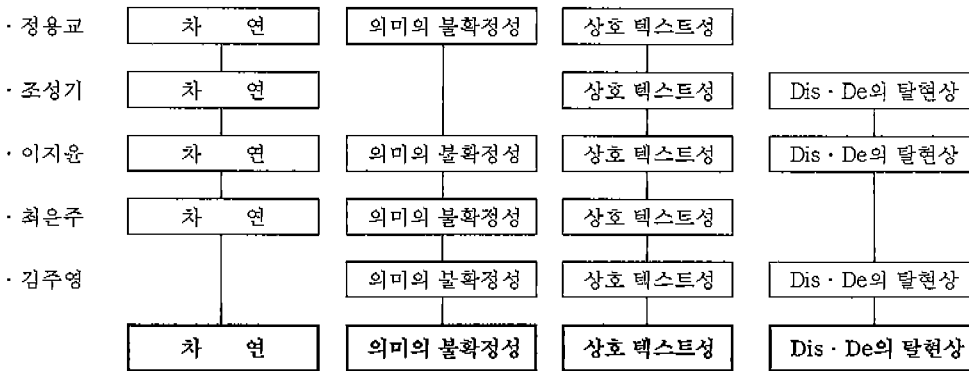
여기서 해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특성으로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산중', '흔적', '현존과 부재',<sup>11)</sup> '상호텍스트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념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쇄고리적으로 작용되고 있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들을 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Dis·De의 탈현상의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해체주의의 디자인 특성

### (1) 차연(Différences)

차연(差延, Différences = 차이+연기)이란 프



<표 1> 해체주의의 디자인 특성

랑스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로 différence에서 유래한 것이며, 데리다(J.Derrida)가 만들어낸 차연은 세가지 의미를 갖는다 ;

(1)다르다, (2)홀뿌리다, (3)연기하다(put off). 여기서 처음 두 의미는 공간성과 연결된 것임에 반해 세번째 의미는 시간에 있어서의 차이(지연)를 가리킨다.<sup>13)</sup> 즉,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데리다(J.Derrida)는 의미작용이라는 개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현존하는 요소들이 각각의 다른 요소들과 관계하고, 과거에 지닌 표시를 그 자체에 간직하며 미래 요소와 관계를 지니는 표시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 속에서 어느 한 요소가 그 텍스트내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현존할 수 없게 되며, 그것의 의미는 본질과 영원히 '차이'를 갖게 되며 끝없이 '유보(deferment)'하게 되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히 부합될 수 없다.<sup>14)</sup>

9) 김성곤(譯),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88, p.15.

10) 정용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의 건축의 비교」, 연대 석사학위논문, 1991, p.53.

11) 현존(presence)과 부재(absence) : 예를 들어 하나의 날은 화살은 결코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 어떤 특정한 지점에 정지해 있다. 그 화살의 운동은 현존의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현존하지 않는다(=부재한다). 즉 운동의 현존은 단지 모든 순간이 이미 과거-현재-미래가 흔적으로 표시되는 한에서만 생각될 수 있다. 이광래, op. cit., p.22.

12) Ibid, pp.371~387.

13) Vincent B.Leitch, 권택영(역),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0, p.65.

14) 김성곤(編), op. cit., p.20.

## (2) 의미의 불확정성

## (Intermeaning of Meanings)

데리다(J.Derrida)는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언어는 그의 체계 속에서는 불확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언어로 표현되려는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 자취, 또는 유사일 뿐이고, 결국 리얼리티 역시 허위이거나 은유일 뿐이라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sup>15)</sup>

또한 해체주의는 기호의 재현가능성을 거부한다. 이 말은 '존재란 모든 기표(記票: signifiers, 언어의 기호적 측면)가 언급하는 궁극적인 기의(記意: signified, 언어의 의미적 측면)'라는 구조주의의 기호모델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리다(J.Derrida)는 의미는 기호에서 직접적으로 현존되지 않으며, 기호의 의미는 기호와 다른 어떤 것이기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호에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쉽게 하나로 고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감상자는 궁극적인 기의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뜻한다.<sup>16)</sup>

따라서 의미란 불확정적이며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되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띠고 있다.

## (3)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 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며,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언술행위의 형태들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을 따른 것이다.<sup>17)</sup>

즉, 데리다(J.Derrida)가 주장하는 '병행인용'이란 두개의 극단적인 텍스트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채 그 텍스트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sup>18)</sup> 여기서 텍스트(texte)는 거미집 모양의 망사조직(상호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반복 혹은 보충이라는 개념과 함께 작용하여 '영역' 해체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다른 상황, 다른 영역(회화, 음악 등)으로의 이식이자 산중으로의 번역으로 모든 분야에서는 텍스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영역을 초월하여 존재한다.<sup>19)</sup>

## (4) Dis·De의 탈현상

해체는 수학적 세계관의 출발인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탈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탈현상으로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가 나타나게 되며 전체의 이미지는 부유하는 형태를 나타낸다.<sup>20)</sup>

탈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 원리로는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 붕괴 등으로 설명되어지며, 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혼합, 중첩, 왜곡, 단편, 우연 등이 있다. 먼저 탈구성(decomposition)은 기존구성방식의 파괴로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을 부정하며 이는 곧 해체의 개념이기도 하다. 탈중심(decentring)은 反중력적인 형태의 디자인으로 부정성의 논리로부터 나왔으며 이는 중력이라는 고전적인 규범에 대한 반발적인 표현이다. 불연속(discontinuity)은 내적·외적인 연속성(틀)을 해체하는 것으로 그 속의 일체성을 배제시켜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하는 것이며, 분열·붕괴(disruption)는 쪼개거나 부수는 과정

15) 김세공(編), op. cit.에서 "탈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구현된 역사와 역사외식, 송문근", p.217.

16) Madan Sarup, 임현규(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1, pp.19~20.

17) 김원갑, "현대 건축 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페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대 박사학위 논문, 1991, pp.198~199.

18) 김세중·서우석(역), 「데리다의 해체주의」, 문학과 지성사, 1988, p.102.

19) 이광래, op. cit., p.386.

20) 김능현 "현대 실내 디자인의 해체적 구성경향", 1992, p.10.

에서 노출이 되기도 하며 해체의 경향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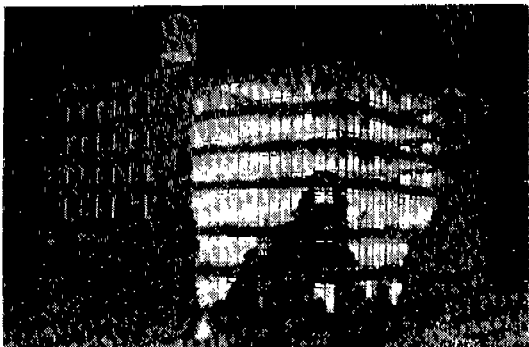
### Ⅲ. 건축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

본 장에서 건축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경향을 먼저 고찰해 보는 것은 건축물도 복식과 같이 그 시대의 생활 양식의 표현 예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I장에서 살펴 본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을 근거로 건축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 1. 차 연

차연은 차이가 나는 동시에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는 이중적 개념에 의해 의미나 진리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히 부합될 수 없음을 뜻한다. 건축에서는 차연을 표현하기 위해 이동, 거리 간격, 단편, 전위, 흔적, 중첩 등의 개념이 사용되며, 과거-현재-미래의 양식이 공존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연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Site의 Paz Building이다. Site는 이 작품에서 실내의 장식적인 면들은 신건물에서 보존하고 주출입면은 구건물에서 나타내어 역사적인 흔적을 보임으로써 마치 신건물이 기적적인



[그림 1] Site, Paz Building,  
1983, 「SITE」, p.171

부활에 의해 구건물로부터 솟아난 것처럼 디자인 하였다. 이 외에도 Site는 Brickwork Design Center에서 작은 벽돌을 이용하여 역사의 연속적인 미니환경을 형성하였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르네상스, 아르누보를 거쳐 현대 하이라이즈 빌딩에 이르기까지 12개 이상의 역사적 양식이 결합되도록 하였다.<sup>21)</sup>

이와 같이 건축에서 나타난 차연은 과거의 양식이나 모티브를 현재의 감각으로 미래까지 결합하여 새롭게 재구성하였으며, 과거의 정서, 감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역사를 중요시하여 연속적 개념으로 보는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 2. 의미의 불확정성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이므로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사실상 부재하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감상자는 인간의 형이상학과 그로 인해 재현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건축물은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되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띄고 있다.

Peter Eisenman은 주택 시리즈에서 기둥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여 기능론의 해체를 제시하였으며, 목적에 의해 건축이 더이상 축소되어서도, 설명되어서도 안되는 목적론의 해체도 제시하였다.<sup>22)</sup> Bernard Tschumi도 라 빌레트 공원에서 거주하지 않는 공간, 용도가 불분명한 공간으로 기능론과 목적론을 해체하고 있다. 건축에서 나타난 의미의 불확정성은 개방된 의미, 알수 없는 공간과 기둥으로 목적론과 기능론을 해체하고 형태관계성의 불분명성으로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된다.

21) James Wines, 안병의(역), 「SITE」, 영문출판사, 1991, pp.168~171.

22) Andrew Benjamin, “해체와 예술/해체의 예술”, 「공간」, 1990, 4, p.117.

### 3. 상호 텍스트성

건축에서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은 건축이라는 하나의 텍스트의 한계를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과정에서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피하였으며, 장르 혼합, 기능혼합, 상호작용으로 여러장르가 공존할 수 있는 중간적 장소의 건축물이 나타났다.

Bernard Tschumi의 동경국립극장은 음악과 건축의 접목을 시도하여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이 잘 드러내었으며, Peter Eisenman도 프랑크프르트 생물학 센터와 코랄 워크에서 상호텍스트성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프랑크프르트 생물학 센터에서 생물학의 DNA의 기본구조인 CGAT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인 복제, 전사, 전위를 건물계획의 각각의 배치와 모든 형태표현요소들에 건축적으로 은유하여<sup>23)</sup> 건축과 생물학의 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써 다른 새로운 형태적 시도를 하였다.

<그림 2>

### 4. Dis · De의 탈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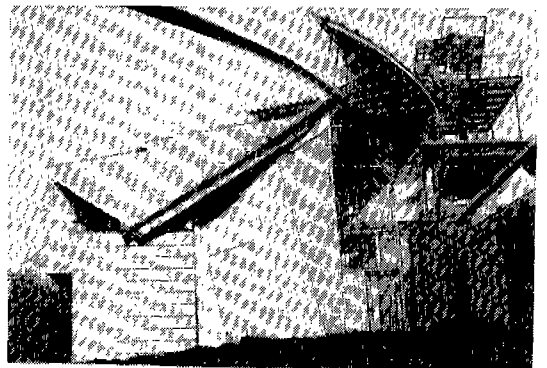
건축에서 나타난 탈현상으로는 反중력으로 여러 각도를 지닌 기둥들, 분열·붕괴된 듯한 형태,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과 모듈(Module)체계의 의도적 파괴, 그것들의 변위와 불균형의 이미지로서 더욱 난해한 해체를 보여준다. 또한 부정형의 추상적 공간 전개를 위해서 재료에서 시공기술에 이르기까지 스텐레스, 편칭메탈, 반사유리등으로 하이테크적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Günter Behnisch의 Hysolar Institute Building은 휘어진 선, 다양한 각도의 부재들이 완벽성을 파괴하며, 기울어진 반사유리와 스틸의 조합으로 하이테크적 경향과 함께 탈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3> Gordon Matta-Clark은 Pompidou Mu-



[그림 2] Peter Eisenman, Bio-Centrum, 1987, 「Deconstruction II」, p.150.



[그림 3] Günter Behnisch, Hysolar Institute Building, 1989, 「What is Deconstruction?」, p.61.

seum에서 붕괴된 듯한 형태와 splitting(쪼개진 틈, 파편)을 통해 노출을 보여주며, Collage Revus는 벽없는 집을 만들어 기존의 구성방식을 해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건축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인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Dis · De의 탈현상을 내적의미와 외적 형식으로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23) Peter Eisenman, "Resent Works : Bio-Centrum, Frankfrut-am-Main", 「Architectural Design, Deconstruction II」, vol. 59. 1/2 1989, pp.44~48.

<표 2> 건축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

구분 \ 내용과 형식	개 념	형 태	디자인 특성	디자이너
차 연	시간과 공간의 차이+지연, 흔적과 전위	강한 대비형태 극적 형태	과거-현재-미래 양식의 결합	Site B. Tchumi P. Eisenman D. Libeskind
의미의 불확정성	형태관계성의 불분명성, 미래에 재해석	요소의 분절과 혼합, 플라주적 형태	용도가 불분명 한 공간, 기능없는 기둥, 벽, 창문	P. Eisenman B. Tchumi D. Libeskind C. Himmelblau
상호 텍스트성	장르혼합 기능혼합 상호작용	개념적 형태 관념적 형태	설계과정의 개념을 타장르에서 인용, 여러기능 공간	P. Eisenman B. Tchumi D. Libeskind C. Himmelblau
Dis·De의 탈현상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	기존구성방식과 유클리드 기하 학의 파괴, 反중력, 모듈(Module) 체계의 파괴	변위와 불균형 기하학적 형태 기울어진 형태 비대칭적 형태 파괴적 형태	형태와 구조의 파괴, 여러 각도의 기둥과 벽면, 분열, 붕괴, 구멍, 노출	C.Himmelblau D. Libeskind Behnish & Partners G. M. Clark

IV.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해체주의의 개념과 III장에서 살펴본 건축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의 디자인 특성을 근거로 복식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차 연

복식에서의 차연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차연과 흔적의 차연 2가지로 나누었다.

(1) 시간과 공간의 차연

과거-현재-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키거나 복고풍의 형식으로 과거의 양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재조명한 차연은, 과거가 흔적으로 존재하고 현재의 소재와 감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며 미래까지 상상하여 결합하여 사과의 틀을 넓혀주기도 한다.

Vivienne Westwood, Romeo Gigli, Gianni Versace와 같은 많은 디자이너들은 이집트, 그리스, 바로크 등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 역사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며 198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역사를 중요시하는 해체주의의 개념과도 통한다.

미래를 결합한 패션은 1960년대에도 유행하였는데, Andre Courrèges를 필두로 ‘우주복 패션’이 등장하였으며,<sup>24)</sup> Paco Rabanne는 지금껏 생각할 수 없었던 직물 이외의 소재-플라스틱, 금속, 체인-로 옷을 만들어 미래적인 분위기를 내었으며, Pierre Cardin은 절묘한 커팅으로 미래를 암시하기도 했다.<sup>25)</sup>

<그림 4>는 19세기말 스커트 속에 받쳐 입어 힘을 강조하던 벤틀(Bustle)이 주름잡힌 실크 스커트의 걸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모습은 현대의 자켓 스타일의 드레스를, 뒷모습은 과거의 양식을 현대의 감각과 소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양식을 나

24)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p.237.

25) 이재창, 「패션디자인 발상트레이닝」, 정은도서, 1993, Vol. 3, pp.8~9.



[그림 4] M.Sitbon, 벗슬 이용한 드레스,  
92-93 A/ 『W』Collections』, p.151.

타낸다. 문화와 역사를 지향하는 Westwood는 1985년 ‘Mini-Crini’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구속(크리놀린)과 해방(미니스커트)을 의미하는 문화적인 혼성물이었다.<sup>26)</sup> 또한 Westwood는 17세기의 콜셋과 16세기에 男性器管 부위를 강조하던 코드피스(codpiece)를 여성바지 앞부분에 장식하여 과거의 양식을 현대의 자켓과 바지에 결합시켜 차연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이미지를 현대로, 혹은 미래로 재조명한 차연은 이중적 개념에 의해 의미나 진리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히 부합될 수 없음을 지시하는 데리다(J.Derrida)의 의미처럼 현재에 결합된 과거양식은 과거의 정서, 의미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의미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를 결합한 양식도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내준다.

(2) 혼적의 차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바래거나 닳은 듯한

흔적의 차연은 과거 물자가 부족했던 시대를 연상케하는 복식으로, 상실의 시대적 분위기 혹은 경제적 불황과 자원재활용의 의미를 담기도 한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히피와 반전 운동, 혹은 공민권 운동의 열기, 마르쿠제 등의 문명 비판적 문화혁명론과 같은 혼란된 상황 속에서 봄을 일으킨 낡은 진(jean)과 낡고 오래된 쭉고 의류는 반문화적인 상징이었다.<sup>27)</sup> <그림 5>는 원래 노동복이었던 블루 진을 색이 바랜 듯하고, 찌실과 낱실을 적당히 풀거나 밑단도 남아 보이게 하여 해체주의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5] 작자미상, 닳은 진(jean),  
『패션디자인발상트레이닝』,  
vol. 2, p.51.

또한 60년대 말의 ‘그래니룩’, 80년대 초반 일본 디자이너들이 주도한 ‘거지룩’,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지룩’ 역시 낡고 닳은 듯한 빈곤을 제시하였으며, Karl Lagerfeld, Issey Miyake, François Girbaud 등은 1980년대의 해체적인 옷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sup>28)</sup>

Rei Kawakubo는 1981년 찢기고 기운 티셔츠와

26) Caroline Evans & Minna Thornton, 『Women & Fashion』, (London : WIPOFO, 1989), pp.147~148.

27) 김소영 · 양숙희, “진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학회지, 1996, 7월, pp.12~13.

28) Richard Martin and Harold Koda, op. cit., p.101.



바지 'Day Ensembles'과 1982년 'Lace Sweater'에서 뚫고 구멍난 옷으로 빈곤을 제시했으며, 최초로 구김이 간 옷감 및 식물성 염료로 염색한 옷감을 사용하였는데<sup>29)</sup> 기계는 완벽한 옷감을 만들어냈지만 그는 손으로 직조한 듯한 자연스러운 옷감을 원하였다.<sup>30)</sup>

흔적이 차연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울이 풀린 듯 끝단처리를 하지 않거나, 솔기를 바깥으로 처리한 아웃시름(out seam)기법과 함께 페이딩(fading)<sup>31)</sup> 기법, 패치워크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중고 스타일, 그런지 룩 등의 푸어 룩(poor look)으로 표현된다.

## 2. 의미의 불확정성

복식에서는 기호화한 추상적 형상에 따라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되는 기호화의 불확정성과인은 사람의 착장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착장방식의 불확정성으로 나누었다.

### (1) 기호화의 불확정성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기호와 그 재현능력을 거부한다. 이것은 의미란 기호에서 직접적으로 현존하지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기호에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상자는 궁극적인 기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뜻한다.

세기말의 흐름으로 나타난 정신 세계의 갈등은 인간회복의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원시적이고 아동화적인 추상적 형태나 낙서 혹은 기호화한 문자들의 우화적 표현이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패션에 도입되었다.<sup>32)</sup> 이러한 예는 1960년대 팝 아트의 그라피토와 연결이 되었으며, 1980년대는 패션의 테마로 등장할 정도로 대유행하였고, 풍자가 섞인 낙서와 같은 그림은 「패션은 엘레



[그림 6] S.Sprouse, 그라피토,  
「패션디자인발상트레이닝」,  
vol. 2, p.152.

강스다」라는 공식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sup>33)</sup> <그림 6>은 그림인지, 글자인지 혹은 어느 문양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한 그라피토를 보여준다.

Yve Saint Laurent, Rouis Perro, J.C.Castelbajac은 해와 달, 손바닥, 발바닥, 눈의 모양을 기호화하거나 아동화 같은 형상의 사람 동물, 글자 등을 기호화하여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기호화의 불확정성은 낙서나 글자, 기호화한 추상 형태의 패션 도입으로 기존 미적 체계의 파괴와 미래에 재해석되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제시하며 해석의 관점이 감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2) 착장방식의 불확정성

착장 방식의 불확정성은 착용자의 착장 방식에 따라 혹은 감상자의 해석 방법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되는 기법으로 표현된다.

29) 정형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대박사학위논문, 1995, p.62.

30) Valerie Steele, 「Women of Fashion ; 20th Designers」, (New York : Rizzoli, 1991), p.186.

31) 페이딩(fading) : 색을 여리게 해서 오래 입은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

32) 체금석, op. cit., pp.378~386.

33) 가재창, op. cit., vol. 2, p.150.

Rei Kawakubo는 복식에서 입는 방식의 다양성을 허용하여 belt, hat, scarf로 입혀질 수 있는 무정형의 복식을 제작하였으며, 마지막 행위는 누가 선택하는지, 어느 opening으로 머리가 통과하는지, 각 끈이나 부속물이 어떻게 묶거나 두르는지 입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였다. <그림 7>은 착용자의 묶는 방법에 따라 다양성과 가능성의 새로움을 제시하고 있으며, 헤어스타일은 흰 실이 엉키고 풀어진 듯한 것을 씌우로서 틀에 얽매이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Rei Kawakubo의 작품은 복식과 연관지어 직물과 착용자의 선택능력을 강조하 면서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제안한다.<sup>34)</sup>



[그림 7] R.Kawakubo, 묶기,  
92-93 A/ W 「Collections」, p.30.

Issey Miyake는 생략과 미완성의 상태로 착장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차원적인 구성방법에 의해 3차원적인 입체감을 표현하여<sup>35)</sup> 매기, 두르기, 걸치기의 방법으로 여러 겹의 의복을 레이어링 시키고 착용자의 방법에 따라 불확정성의

원리를 띄게 된다.

이와 같이 착장방식의 불확정성은 착용자의 착장방식에 따라 미래에 새로운 형태의 복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 3. 상호 텍스트성

건축이 하나의 텍스트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텍스트와 상호 인용을 피하듯이, 복식 또한 다른 텍스트와의 병행 인용으로 상호 텍스트성을 나타내고 있다.

#### (1) 성(gender)의 상호텍스트성

해체주의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는 문화적 범주들의 내재적 긴장 또는 양면가치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라는 성의 하위문화로 패션을 나누는 이분법이 사라지게 되었다.<sup>36)</sup> 따라서 양쪽 성을 공유하거나 이성의 복식을 착용한 양성적 이미지의 복식과 성(gender)을 배제한 중성적 이미지의 복식으로 나눌 수 있다.<sup>37)</sup>

첫째, 복식에서 나타난 양성적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러한 성의 혼돈은 고대나 중세에 그 양상을 나타내고는 있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더욱 과격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70년대의 ‘핑크’를 들 수 있고, 1980년대 초에 Jean Paul Gaultier, Katharine Hamnett, Comme des Garçons, Vivienne Westwood등도 복식에 양쪽 성의 요소를 혼재함으로써 성의 장벽을 무너뜨린 복식을 발표하였다.<sup>38)</sup> 남녀의 아름다움을 개성적으로 혼합시킨 앤드로지너스 룩은 70년대 초에 팝스타들의 무대에서 보여진 후 80년대에 확대되었다.<sup>39)</sup>

34) Caroline Evans & Minna Thornton, op. cit., pp.156-159.

35) 채금석, op. cit., pp.242~243.

36)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1993,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48.

37) Ibid, p.84.

38) Caroline Evans & Minna Thornton, op. cit., p.66.

39) 김이은, op. cit., p.101.

또한 복식에서 이성의 옷을 착용하는 경향은 남성복에는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아이템을 적용시키고, 여성복에는 전통적인 남성복의 형태와 소재를 적용한 매니쉬 룩이 60년대를 기준으로 페미니즘 사고의 변화와 시대의 변천과 함께 여러 의미로 수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복식에서 나타난 중성적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성을 배제한 것으로, 1967년 Yve Saint Laurent가 남성의 슈트와 유사한 팬츠 슈트를 발표하였는데, 남·녀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이 때부터 유니섹스 룩이 정착하게 되었으며<sup>40)</sup> 60년대의 유니섹스 룩은 남녀가 동일한 아이템을 복식으로 착용함으로써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림 8>은 Rudi Gernreich가 1970년에 제작한 남성과 여성을 위한 스커트이다. Time誌는 Gernreich가 남·녀 모두 머리, 눈썹 등 신체의 털을 제거하고 성적인 신체적 특징도 제거하여 유니섹스 룩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사화했다.<sup>41)</sup> 이와 같이 성의 상호텍스트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성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R.Gernreich, Unisex look, 「R. Gernreich」, 1970. p.185.

## (2) T.P.O.의 상호텍스트성

1960년대 전까지 개인에게 있어서 복식은 하루의 특정한 시간대, 주변의 타인들, 형식적·비형식적 공간, 사회계급과 환경 등의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구별되어왔다. 그러나 해체주의 복식은 이러한 규범을 해체하고 있다.

복식에서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에 관계없이 복식용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속옷의 겉옷화, 스포츠웨어의 일상복화, 낮과 밤의 혼동으로 활동복과 잠옷, 작업복과 일상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계절에 따른 의복의 규범이 무시되고 있다. 1960년대 말 Casual Wear의 유행으로 T.P.O.를 갖추어 입던 규범이 점차 사라지고, 낮에도 dressy한 옷이 보이고 밤의 모임에도 캐주얼한 옷이 가능했다.<sup>42)</sup>

속옷의 겉옷화, 즉 인프라(Infra) 현상은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에는 파코팅, 피코, 핑킹으로 처리된 시접 등의 라제리 제작과정이 겉옷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브래지어, 폴셋 등의 속옷을 겉옷으로 변형시킨 라제리 룩도 등장하였다. <그림 9>은 Jean Paul Gaultier가 디자인한 금색 폴셋



[그림 9] J.P.Gaultier, Lingerie Look, 「Infra Apparel」, 1990, p.51.

40)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p.360.

41) Peggy Moffitt, 「The Rudi Gernreich Book」, (New York : Rizzoli, 1991), pp.28~29.

42) 백영자·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4, p.443.

룩을 가수 마돈나가 입고 나타나 사람들에게 충격  
을 주었으며, Vivienne Westwood도 1982년 브라  
(bra)를 몇몇한 외의로 등장시켜 속옷과 겉옷의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에 관계없이 복식용도의 구분을 모  
호하게 하여 의복규범이 무시되어 표현된다.

### (3)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은 기존에 없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sup>43)</sup> 로맨틱한 의상과 스포  
티한 의상처럼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의 결합,  
리조트 웨어와 비즈니스 웨어처럼 입는 목적이 다  
른 결합, 겉옷과 속옷의 결합처럼 용도가 다른 결  
합 등 전혀 이미지·목적·용도가 다른 아이템이  
상호인용되어 부조화에서 다양한 양식을 나타내  
고 있다. 이 외에도 상반되는 결합으로 전혀 다른  
패턴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전혀 match가 되지  
않는 색채, 소재를 결합시키기도 한다.

Chanel, Gianni Versace는 종종 오픈쿠퍼르와  
거리패션을 결합하여 반대되는 이미지의 결합을  
제시한다. <그림 10>은 속옷에 겉옷이 결합한 용  
도의 혼용을 보인다.

1970년대 초에 세퍼레이츠를 겹쳐 입는 ‘레이어  
드 룩(layered look)’이 인기였으며, 악세서리는  
첨가되거나 제거되어 또 다른 룩처럼 보이도록 하  
였는데<sup>44)</sup> 이와 같은 방식은 해체주의의 중첩의 개  
념과 통한다. 이와 같이 코디네이션의 상호 텍스  
트성은 이미지·용도·목적의 혼용, 겹쳐 입는 방  
식, 다양한 악세서리의 착용으로 복식의 형태를  
표현한다.



[그림 10] C.Thomas, 용도의 혼용,  
92-92 A/ W 「Collections」, p.201.

### (4)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1960대 후반 이후의 소재개발과 사과의 변화,  
개성의 표현 등으로 소재사용에 있어서 다양해지  
고, 안감으로 겉옷을 만들거나 겉옷 전체가 시드  
루(see-through)하여 기존 상식적인 소재의 범위  
를 넘어서기도 한다. 소재를 결합할 때도 이질적  
인 소재의 결합, 고급 소재와 값싼 소재의 결합,  
하드한 소재와 소프트한 소재의 결합, 원시 소재  
와 하이테크 소재를 결합<sup>45)</sup>하여 극단적인 대비를  
표현한다.

Paco Rabanne는 1966년에 금속과 플라스틱으  
로, 1967년에 알루미늄으로 옷을 제작하였으며,<sup>46)</sup>  
1967년 Andre Courrèges도 비닐, 플라스틱, 셀로  
판, 비닐, 알루미늄, 금속 등을 사용해 미래적인  
디자인을 하였다.<sup>47)</sup> Rudi Gernreich는 1967년, 69  
년에 지름 2cm가량의 원형 거울을 옷의 문양으로  
사용하여 옷을 제작하였으며,<sup>48)</sup> Issey Miyake도

43) 가재창, op. cit., Vol. 1, p.37.

44) Jane Mulvagh,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ew York : Viking, 1988), p.299.

45) 가재창, op. cit., Vol. 1, p.37.

46) 신상옥, op. cit., p.359.

47)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2, p.280.

48) Peggy Moffit & Wiliam Claxton, op. cit., p.141, p.180.

기름종이, 고무, 대나무, 누비거나 주름잡힌 특이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그림 11>은 시드루한 블라우스와 인조가죽 자켓, 바지는 한가지 소재로 하지 않고 인조가죽과 진(Jean)을 결합시켜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은 비치는 비닐, 검은 에나멜 가죽, 금속, 유리섬유, 셀로판, 종이섬유, 거울, 알루미늄, PVC, 고무, 대나무, 님은 듯한 천, 구김살을 준 천, 누비거나 주름잡힌 천 등을 소재로 사용하여 표현한다.



[그림 11] H.Storey, 소재의 혼용, 92-93 A/ W 「Fashion Show」, p.297.

#### 4. Dis · De의 탈현상

복식에서의 탈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 · 붕괴의 4가지로 나누었다.

##### (1) 탈구성

탈구성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기존구성방식의 파괴로 기하학적 형태의 역설적 구성을 취하며 형태의 왜곡과 과장을 나타낸다.

Rei Kawakubo는 여성의 몸매를 무시한다는 뜻을 가진 Comme des Garçons社를 설립하여<sup>40)</sup> 많은 옷에서 한쪽 소매가 길거나 짧아져나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매가 돌출하여 인체를 감싸기도 하며, 머리에 구멍이 두개 있거나, 뒤집어 입기, 미스매치 스와치기법, 묶거나 찢거나 슬래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기능주의는 역설적으로 입는 이들을 편안하게 하였고, Rei Kawakubo는 의상자체에 대한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여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꾸뛰르의 법전을 깬다.<sup>50)·51)</sup>

<그림 12>는 상의 밑에 하의 대신 또 다른 상의를 입힘으로써 상. 하의의 개념이 불분명해졌으며, 왼쪽 팔은 밖으로 나왔지만 오른쪽 팔은 아래쪽 상의로 들어가고, 아래의 상의는 시접이 밖으로 나온 뒤집힌 형태이다.

또한 Issey Miyake는 “서구 개념을 모르는 것



[그림 12] R.Kawakubo, 하의 대신 상의, 92-93 A/ W 「Collections」, p.37.

49) Lynn Schnurnberber, 「Let There Be Clothes : 40000 Years of Fashion」, (Workman Pub., 1991), p.401.

50) Caroline Evans & Minna Thornton, op. cit., pp.156~157.

51) Valerie Steele, op. cit., p.183.

이 나의 장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서구복식의 기존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시각의 복식을 만들었다.<sup>52)</sup> 그는 동을 과장되게 하여 추상적으로 부풀리거나, 하의로 입어야 할 바지 안에 온 몸이 들어가게 하는 착용방법으로 인체와 기존 구성에 관계없는 형태를 제시하였다.

복식에서 나타난 탈구성적 경향은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한다.

## (2) 탈중심

복식에서 나타난 탈중심은 내적으로는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하위에 있던 것(여성, 거리패션...)의 복귀현상을 보이고, 외적으로는 건축과 마찬가지로 중력에 대항하여 기울어지고, 여러 각도를 지닌 수직·수평선을 탈피한 형태를 보인다.

1960년대는 모드(Mode)의 대중화시대로 거리패션을 반영하여 살아있는 패션을 창조하기도 하였으며, 69년 Rudi Gernreich는 “오프뚜르르는데 이상 돈, 지위, 권력 등과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제 패션은 거리에서 시작한다.”고 언급했다.<sup>53)</sup>

1970년대 이후 활발해진 여성해방운동은 나아가 80년대에는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데리다(J.Derrida)의 이분법의 해체현상과 동일하다.

복식으로 나타난 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13>은 정장인 자켓의 중심이 기울어져 단추도 잘못 채운 것 같고 밑단도 어긋나게 되며, 어떤 옷은 마치 샤링을 잘못 잡아 옷을 잘못 만든 것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복식의 탈중심을 나타내는 특성은 앞중심이 기울어지고, 밑단이 여러 각도로 구성되고, 다이어트, 옆솔기, 지퍼, 단추등 모든 것이 중력에 대항한 기울어진 형태를 이루어 수직·수평선을 탈피한 형태이다.



[그림 13] D.Y.Lomba, 기울어진 자켓, 90-91 A/ W 「Fashion Preview」, p.84.

## (3) 불연속

복식에서 불연속은 연속적인 ‘틀’을 해체하는 것으로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내적인·용도상의 관련성이 없는 불연속이 있고, 외적인·형태상의 관련이 없는 불연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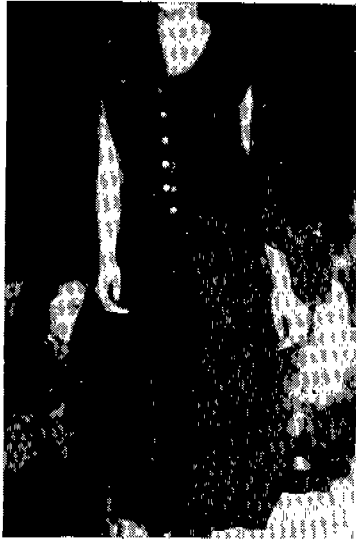
내적·용도상의 불연속의 개념은 앞 장 T.P.O.나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과 의미가 상통한다. 외적·형태상의 불연속은 주로 앞중심선과 상·하의를 축으로 이질적인 소재, 부조화스러운 디자인의 결합으로 일체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옷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14>는 하의가 좌·우로 갈라져 색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뉘고 자켓도 오른쪽은 몸판이 있지만 소매가 없고 왼쪽은 소매는 있지만 몸판이 없는 좌·우불연속의 상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 소재, 색상, 식서, 기법의 불연속을 나타내는 복식의 불연속은 좌·우 혹은 상·하가 일치하지 않는 부조화로 비대칭을 제시한다. 이러한 특성을 다룬 디자이너는 Comme des Garçons이 대표적이다.

52) 채금석, op. cit., p.241.

53) Amy de la Haye, 「Fashion Source Book」, (New Jersey : Wellfleet, 1988) p.125.



[그림 14] Commeçdes Gar ons, 좌우불연속, '89 S/ S「Collections」, p.89.



[그림 15] G.Beene, Spiral slip dress, 「Infra Apparel」, 1991, p.26.

(4) 분열 · 붕괴

20세기 후반의 복식에서 나타난 분열 · 붕괴적 표현은 의도적으로 슬래쉬하고 손상하는 등 명백한 파괴행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체는 분해적 창조의 한 과정이 되었다.<sup>54)</sup>

1970년대 핑크 패션에서 시작된 파괴적인 복식은 찢고 구멍을 내고 이로 인한 노출과, 옷의 형태와 입는 방식을 거부하고 섬뜩한 장식을 하였으며, Vivienne Westwood에 의해 주도되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그림 15〉는 Geoffrey Beene의 “Spiral slip dress”로 마치 옷이 쪼개진(split) 것처럼 보이지만 등밑에서 대퇴부에 이르는 비대칭의 시드루와 동판의 비대칭적인 끈은 퇴폐적인미를 주기도 한다. Paolo Gucci는 흰색 심플한 드레스 허리에 구멍(hole)을 내어 그 사이로 보이는 금속 벨트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벨트를 옷 위에 해야한다는 기존 개념의 파괴이기도 하다. 이처럼 복식에서 분해 · 붕괴되어 나타난 현상은 어느 부위인가를 노출시켜 파괴적인 미와 퇴폐적인미를 주고 있다.

〈표 3〉에서는 복식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표 2〉에서 제시한 건축의 해체주의적 특성과 유사성이 중첩됨을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복식(Clothing)은 육체의 의복인 동시에 정신의 의복이며, 한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예술적 양식을 나타내는 문화적 총집합체이다. 이것은 한 시대의 복식을 연구하면 그 시기의 시대상, 가치, 문화 등을 알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후반에 문학, 사회, 예술에 걸쳐 고르게 나타난 해체주의를 규명하여, 복식과 타예술장르중 건축과의 유사성을 규명하고, 복식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체주의의 개념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규명된 특성을 바탕으로 복식과 건축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체주의는 1966년 자크 데리다(J.Derrida)를

54) Richard Martin & Harold Koda, op. cit., p.94.

<표 3>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

내용과 해석		개 념	형 태	디자인 특성	디자이너
차 연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의 차이+지연, 혼적, 전위	양식 대비로 인한 극적형태	과거-현재-미래 양식의 결합	V. Westwood R. Gigli G. Versace
	혼 적	과거의 혼적, 회고로 낡고 닳은 듯한 복식	중고스타일, 그린지 룩등 푸어룩, 재활용 패션	탈색, 패치워크 올풀기, outseam기법	K. Lagerfeld R. Kawakubo
의미의 불확정성	기호화	미래의 재해석	난해한 형태	그라피또 기법(낙서, 글자, 기호화한 추상형)	J.C. Castellbajac K. Hamnett S. Sprouse
	작장방식	작장방식에 따른 다른 해석, 형태관계 불분명성	미완성의 형태	매기, 묶기, 두르기 용도 불분명한 소매, 구멍	R. Kawakubo I. Miyake Y. Yamamoto
상호 텍스트성	성(gender)	양성적 이미지	엔드로지너스룩 (남녀 복합적)	이성복식착용 혼성 된 복식	J. P. Gaultier K. Hamnett
		중성적 이미지	유니섹스룩	無性別 복식	R. Gernreigh
	T.P.O.	시간성 공간성의 혼제 목적성	Lingerie 룩 Casual 룩	속옷의 걸음화 실내복·외출복·작업복 혼용	J. P. Gaultier J. Galliano G. Versace
	코디네이션	이미지, 목적, 용도가 다른 옷 병행	개념적 형태, 극단적 형태	극단적 코드, 겹쳐입기, 다양한 악세서리	V. Westwood G. Versace J.P. Gaultier
	소 재	이질적 소재 병용, 의외의 소재 사용	강한 대비 형태, 전혀 다른 패턴의 결합	종이, 금속, 비닐, 셀로판·유리섬유, 거울, 구겨지고 닳은 소재	P. Rabanne A. Courr ges R. Gernreigh I. Miyake
Dis·De의 탈현상	탈구상	기존 구성방식파괴, 룰(rule) 파괴	변형, 왜곡, 과장된 형태, 기하학적 형태	기존 형태와 구조가 파괴된 옷	R. Kawakubo I. Miyake
	탈중심	反중력	중심이 기울어진 형태	중심, 밀단, 지퍼가 기울어진 옷	J. Galliano R. Kawakubo
	불연속	연속성(들)의 해체	비대칭적 형태	상하·좌우가 다른 옷	R. Kawakubo J. Watanabe
	분열·붕괴	분열·붕괴로 옷의 파괴	핑크 룩, 파괴적 형태	슬래쉬, 찢기, 구멍 뚫기, 노출	J. P. Gaultier J. Galliano

중심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으며 해석의 불가능을 시사하였다. 이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들에 대한 해체이며, '개체', '차이', '타자(他者)', '역사성'을 인정하고 전통적인 서구 형이상학의 이분법을 해체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개념과 형성 배경을 통해 그 특성을 4가지로 규명하였다. 건축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규명된 4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그 이중적 개념에 의해 의미나 진리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히 부합될 수 없으며, 과거·현재·미래의 요소가 혼적



을 지닌 채 관계를 갖는 것이다. 건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양식이 공존하는 건축물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과거의 정서, 감각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둘째, 의미의 불확정성이란 의미는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이므로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사실상 부재하며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되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띄고 있다. 따라서 건축에서는 형태관계성이 불분명한 디자인과 기능 없는 기둥과 벽, 용도가 불분명한 공간 등이 나타났다.

세째, 상호텍스트성이란 두개의 극단적인 텍스트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채 양쪽 모두를 참조함으로써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건축에서는 건축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피하여 설계과정의 개념을 타장르에서 인용했으며 여러 장르가 공존할 수 있는 중간적 장소의 개념인 건축물이 나타났다.

네째, Dis·De의 탈현상은 종래 구조주의의 완전성과 이성에 대한 부정으로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나타내는 디자인 원리로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 등이 있다. 건축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의도적 파괴와 반중력, 변위와 불균형, 여러 각도를 지닌 건축물, 쪼개지고 파괴된 건축물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규명된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과 건축에서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복식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원은 두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먼저 과거·현재·미래가 결합된 복식, 과거의 복식을 현재의 양식으로 재조명한 복식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과거의 정서, 감정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주로 다른 디자이너는 R.Gigli, P.Rabanne, G.Versace, V.Westwood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 다 닳은 듯한 복식으로 과거회상과 재활용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디자이너는 Watanabe, R.Kawakubo, I.Miyake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의미의 불확정성은 미완성과 미래에 재해석되는 의미로 2가지로 분류하였다. 기호화의 불확정성은 추상적인 형태나 낙서 혹은 기호화된 문자들의 패션도입으로 해석의 관점이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디자이너는 J.C.Castelbajac, K.Hamnett, S.Sprouse 등이 대표적이다. 착장방식의 불확정성은 착용자의 매기, 두르기, 걸치기, 묶기 등의 착장방법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복식으로 디자이너는 R.Kawakubo, I.Miyake, Y.Yamamoto 등이 대표적이다.

세째, 상호텍스트성은 다른 텍스트와의 병행인용이며 4가지로 분류하였다. 성(gender)의 상호텍스트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된 성개념으로 兩性을 공유하거나 이성의 복식을 채택한 兩性的의 이미지, 남성적·여성적 개념을 배제한 中性的의 이미지의 복식이 있으며, 디자이너는 J.P.Gaultier, K.Hamnett, Comme des Garçons 등이 대표적이다.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의 혼재로 속옷의 걸옷화, 잠옷, 일상복, 작업복 등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계절에 따른 의복의 규범이 무시되고 있으며, 디자이너는 J.P.Gaultier, G.Versace, J.Galiano 등이 대표적이다.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은 이미지, 목적, 용도가 전혀 다른 아이템이 서로 결합되면서 자유로운 혼합과 대비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는 J.P.Gaultier, G.Versace 등이 대표적이다.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소재개발과 사고의 변화는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옷감이 아닌 의외의 소재를 사용하며, 이를 주로 다른 디자이너는 P.Rabanne, I.Miyake, A.Courr ges, R.Gernreich 등이 대표적이다.

네째, Dis·De의 탈현상도 4가지로 분류하였다. 탈구성은 기존구성방식의 파괴로 형태의 왜곡과 과장을 나타내며, 디자이너는 R.Kawakubo, I.Miyake, J.P.Gaultier 등이 대표적이다.

탈중심은 내적으로는 이분법에서 하위개념의 복

귀현상을 보이고, 외적으로는 앞중심, 밑단 등이 기울어지고 여러 각도이며 수직·수평선을 탈피한 反중력적인 형태를 보인다. 디자이너는 J.Galliano, R.Kawakubo, Devota Y Lomba 등이 대표적이다.

불연속은 연속적인 '틀'을 해체하는 것으로 내적으로는 위의 T.P.O.와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과 의미가 상통하고, 외적으로는 좌·우, 상·하가 일치하지 않는 부조화스러움을 의미하며 Comme des Garçons의 J.Watanabe가 대표적이다.

분열·붕괴적 표현으로는 의도적인 슬래쉬, 구멍을 통한 노출로 파괴적이고 퇴폐적인 美를 준다. 디자이너는 J.Galliano, J.P.Gaultier, T.Mugler 등이 대표적이다.

해체주의와 복식과 건축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 현재, 미래의 양식이 결합된 차연, 형태관계성이 불분명하여 미래에 새롭게 재해석되는 의미의 불확정성, 다른 텍스트와의 병행인용을 나타내는 상호텍스트성, 기존구성방식의 탈피와 反중력, 불연속, 분열, 붕괴를 나타내는 Dis·De의 탈현상이 복식과 건축에서 같은 의미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예술양식과 사상의 유사성을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해체주의라는 철학적 개념이 건축과 복식에서 같은 내적의미로 작용하였지만, 개념상의 이르기 때문에 외적 형식으로 표현되기에는 Dis·De의 탈현상을 제외하고는 조형예술의 특성(선, 형태, 색채, 재질)으로 분석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후속연구로는 타 예술장르 중 미술을 복식의 해체주의적 특성과 비교·분석하여 20세기 후반의 사상과 예술을 재정리하는 것과 해체주의 디자이너를 몇 명 선택하여 내적 의도가 담긴 심층적인 연구도 의미있으리라 여겨 제안해 본다.

## 참고문헌

- 가재창, 「패션디자이너 발상트레이닝」Vol. 1-5, 서울 : 정은 도서, 1993.
- 김성곤(역),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 민음사, 1988.
- 김세중, 서우석(역), 「데리다의 해체주의」,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8
- 백영자, 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경춘사, 1994
- 신상욱, 「서양복식사」, 서울 : 수학사, 1991.
-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1989.
-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수학사, 1982.
-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9.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 : 경춘사, 1995.
- Eisenman, Peter, 이호정(역), 「Conceptual Architecture, A+U」, 서울 : 집문사, 1988.
- Evans, Caroline & Thorton, Minna, 「Women & Fashion」, London : WIPOFO, 1989.
- Haye, Amy, 「Fashion Source Book」, Hong Kong : Wellfleet, 1988.
- Johnson, Philip, 「A+U, Peter Eisenman」, Tokyo : A+U Publishing, 1988.
- Leitch, Vincent B. 권택영(역),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서울 : 문예출판사, 1990
- Martin, Richard and Koda, Harold 「Infra Apparel」,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 Moffit, Peggy, 「The Rudi Gernreich Book」, New York : Rozzoli, 1991.
- Mulvagh, Jane,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ew York : Viking, 1988.
- Norris, Christopher & Benjamin, Andrew, 오덕조(역) 「What is Deconstruction?」, 서울 : 청람출판사, 1996.
- Papadakis, Andreas & Cooke, Catherine & Benjamin, Andrew, 「Deconstruction (Omnibus Volume)」, Academy Editions, 1989.
- Sarup, Madan, 임현규(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부천 : 인간사랑, 1991.

- Steel, Valerie, 「Women of Fashion」 20th Century, New York : Rizzoli, 1991.
- Wines, James, 안병의(역), 「SITE」, 서울 : 영문출판사, 1991.
- 김이은,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5.
- 김성복,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 논문집, 1994.
- 김주영,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5.
-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3.
- 이종무, 「해체주의 건축의 형성배경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2.
- 이지윤, 「조형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 정용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1.
- 「Collections」, '80~'90.
- 「Fashion Show」, '80~'90.
- 「VOGUE」, '80~'90.

## ABSTRACT

### A Study of Modes of Deconstruction in Clothing

—Comparison of Clothing with Architecture—

Deconstructionism is a philosophical stream in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which goes against western metaphysics, and tries to deconstruct the dualism, e.g., eastern/western, man/woman. Its main concepts are 'individual', 'other', 'difference', 'restoration of the repressed', 'decentralization'. Today, it shows strong influences in literature, art, and other social fields.

This study investigated inner meanings and exterior forms represented in clothing on the base of Jacques Derrida's theory in order to re-search modes of deconstruction in it. And it compared clothing with architecture among other genres of art in order to discover similarities between thought and modes of art in a certain period. For illuminating concept of deconstruction, I referred to the literatures of preceding studies, and for deconstruction's characteristics in both clothing and architecture, I referred work's collection book, 「collections」, and other related books dealing from 1960's to this point.

As a result, there are four modes of deconstruction in both clothing and architecture as follows :

1) Différance, which is a concept of the difference in time and space as being trace.

2) Intermeaning of meanings, which is not present in reality, but re-interpreted a new in the future.

3) Intertextuality, in which a texte is not alone, but with others.

4) Dis · De phenomenon, in which distortion and fragmentation forms occur as the result of the denial of perfection and reason.

There are characteristics of modes of deconstruction in clothing as follows :

1) Différance ; R.Gigli, P.Rabanne, G.Versace, V.Westwood are representatives of the clothing which is combined with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r is re-viewed as the clothing of the past in the present point of view. J.Watanabe, R.Kawakubo, I.Miyake are representatives of the clothing which is outdated, but re-viewed in the sense of recollection and re-usage.

2) Intermeaning of meanings ; R.Kawakubo, I.Miyake, Y.Yamamoto are representatives of the clothing which is incomplete, but re-interpreted in the future, and appears to be new-fashioned according to ways of binding, wearing, throwing on, and tying. J.C.Castelbajac, K.Hamnett, S.Sprouse are representatives of the clothing which is made up of abstract forms, scribbling or symbolic letters which appears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view-point of observers.

3) Intertextuality ; J.P.Gaultier, K.Hamnett, Comme des Garçons are representatives of intertextuality of gender which avoids the duality of man/woman. J.P. Gaultier, G.Versace, J.Galliano are representatives of the intertextuality of time, place, and occasion which mixes temporality, extensity, and purposiveness. J.P. Gaultier, G.Versace are representatives of the intertextuality of coordination which combines items different in image, purpose, and use. P. Rabanne, A.Courrèges, R.Gernreich, I.Miyake are representatives of the intertextuality of matter which uses heterogeneous matter different

from cloth.

4) Dis · De-phenomenon ; R.Kawakubo, I.Miyake, J.P.Gaultier are representatives of the de-composition which discloses distortion and exaggeration of form through destructing the established way of construction. J.Galliano, R.Kawakubo, Devota Y Lomba are representatives of the decentring which restores the repressed and the alienated on the one hand, and shows front-centrality on the other. Comme des Garçons is representative of the discontinuity because of which right and left, up and down are not in harmony with one another. J.Galliano, J.P.Gaultier, T.Mugler are representatives of the disruption by way of which one makes one's body exposed through intentional slashes or holes.

As a consequence, deconstructionism enabled us to investigate similarities between thought of deconstruction and modes of art in terms of difference, Intermeaning of meanings, intertextuality, and Dis · De-phenomenon. And we found that deconstruction was a phase of development in that it, as a all-comprising and multiple concept, tries to pursue the new through deconstruction.